

“가시적 성과내는 도약의 해”

중기 주머니 사정 썩썩... 20억원 붓는다

순창군, 기업 자금으로 해소·경쟁력 제고 육성자금 지원

순창군은 관내 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내 중소기업육성자금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금액 한도 최대치로 최근 내수부진, 인건비 상승, 제조업 경기침체 장기화를 고려한 결정이다.

작년 한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용자액이 2016년 대비 10억5800만원 증가한 17억3200만원을 용자한 바 있어 관내 제조업황이 좋지 않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업인들의 경기 체감지수인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전년 12월 대비 7p 하락한 68p를 기록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100p 미만일 경우 경기가 안좋다고 판단하게 된다.

한편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관내 공장이 등록된 중소기업체면 자금 지원범위 한도로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운전자금은 3억원, 시설자금은 5억원 한도로 최대 8억원까지 용자가 가능하고 각각 3년, 5년간의 기간 내 4%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순창군청 경제교통과장(실주원)은 “최근 국가 정책의 기조는 일자리 창출이다. 현 정책기조에 맞춰 중소기업육성자금 용자를 통해 기업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아울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군은 오는 16일부터 2월 22일까지 18일간 농업인 1,600명을 대상으로 새해 농업인실용교육을 추진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풍년농사 비나이다” 영농교육 실시

임실군, 16일부터 농업인 1600여명 대상 신기술 보급

임실군이 새해 영농계획을 수립하고, 신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한다.

군은 오는 16일부터 2월 22일까지 18일간 농업인 1,600명을 대상으로 새해 농업인실용교육을 추진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교육수요가 가장 많은 벼, 고추를 중심으로 전년도 영농상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및 농업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기술 등을 경력 30년 이상의 전문강사가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며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임실군청 5층 농민교육장에서 전라작목 휴염소, 부추, 감, 양봉, 호두 5개 과목을 선정해 각 분야 전문강사를 초빙해 재배관리, 병해충관리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이번 농업인실용교육은 1969년 ‘겨울농민교육’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어, 매년 초 농한기를 이용 새로운 농업기술을 보급하여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지역농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온 대표적인 농업인 교육이다.

심 민 군수는 “민선 6기의 핵심전략인 ‘함께하는 희망농업 실현’을 위해 농업인들의 소득창출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며 “이번 교육에 많은 농업인들이 참석해 영농 핵심기술을 습득하고 풍년농사 달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교육일정은 임실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www.agri.insl.go.kr)에서 확인하거나 농촌지원과 인력육성팀(063-640-27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핵심현안 보고회 간부공무원·팀장급 한자리 체계적인 사업추진 만전

임실군이 2018년도 주요사업을 발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핵심현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5일 군은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2018년도 주요업무 핵심현안 보고회를 갖고, 주요사업들에 대한 추진계획을 함께 논의하고, 쟁점사항을 점검하는 등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실시된 핵심현안 보고회는 지난 해 10월 부서별로 진행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실과소 및 읍면에서 57개 핵심현안에 대한 보고와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보고회는 올해 추진될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방향과 쟁점 등을 간부공무원과 팀장급이 한자리에 모여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해결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상반기 내에 조속히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군이 올해 추진할 7대 핵심사업은 △임실읍 도시경쟁력 강화, △육정호 명품 생태관광기반 구축, △임실N치즈 신산업 육성, △성수산 산림휴양개발, △농식품 융복합산업화 촉진, △맞춤형 효심복지, △미래인재 육성 등이다.

또한 2018년도 문화관광정책로 선정된 ‘임실N치즈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글로벌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짜임새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섬진강 예요뮤지엄 조성(280억원)과 임실전 경관개선사업(42억원), 임실군 노인종합복지관 건립(88억원), 육정호 물문화 돌레길 조성(50억원), 임실치즈테마파크 사계절 재미원 조성(70억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임실읍 80억원, 청용면 60억원, 강진면 60억원, 삼계면 60억원), 임실N치즈 6차산업화 지구 조성(30억원), 성수산 왕이숲 생태관광지 조성(72억원), 태조 희망의숲 조성

(84억원), 임실군 다목적체육관 건립(60억원) 등을 10대 핵심사업으로 정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는 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과 임실치즈테마공원조성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2018년도에 추진될 핵심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1월부터 단계적 대응에 돌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연말부터 진행한 2018년도 116개 핵심사업의 월별 로드맵을 확정하는 한편 분기별 추진상황 및 집행률을 점검해 활력넘치는 긍정 운영에 모두 함께 힘을 모아나가기로 다짐했다.

심 민 군수는 “2018년은 모두가 배천작인의 마음으로 군민들의 뜻을 받들고, 임실군이 더욱 약진하는 도약의 해로 만들어 가야 한다”며 “지난 해 크고 작은 많은 성과를 이뤄낸 것을 발판삼아 한층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올해도 더욱 성장하는 임실군을 만들어 가는데 모두 함께 힘을 모아나가자”고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작은목욕탕’ 이 작지 않은 이유

순창, 이용객 5만여명 눈앞
만족도 높아 주민 큰 사랑



순창군은 지난해 9개면에서 운영중인 작은목욕탕 이용객 숫자가 4만7,445명으로 최종 집계 됐다고 밝혔다.

순창 작은목욕탕이 군민들에게 커다란 만족을 주면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군은 지난해 9개면에서 운영중인 작은목욕탕 이용객 숫자가 4만7,445명으로 최종 집계 됐다고 밝혔다. 이름은 작은목욕탕이지만 군민 만족도는 커다란 목욕탕인 것. 단순 수치로만 보면 순창군 인구가 한번 이상 작은 목욕탕을 이용한 숫자다.

이처럼 순창 작은 목욕탕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접근성 강화다. 군은 10개면 중 9개면에 작은목욕탕을 개설해 면 소재지만 나가면 군민 모두가 작은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마지막 구립면 작은목욕탕은 138㎡규모로 올해 4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립면 작은 목욕탕이 완공되면 10개면 전체지역에 작은목욕탕이 생기는 도내 최초의 지자체가 된다.

두 번째 이유는 깨끗한 관리와 친절한 운영이다. 작은 목욕탕이 개설된 각 면에서는 전담 공무원을 두

고 깨끗한 목욕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일찍 일어나는 주민들이 기다리지 않게 운영시간을 앞당기는 등의 조치도 취하고 있다. 작은목욕탕이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역할과 정서적 안정감, 건강증진도 높이는 효과도 생기면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황승주 군수는 “작은 목욕탕은 농촌지역에서는 단순히 목욕탕 이상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어르신들이 함께 목욕도 즐기기도 대화도

나누면서 이웃 마을 주민들과 만나면서 공동체 복원 역할은 물론 정서적 안정감도 주고 있다”면서 “앞으로 구립면 작은목욕탕 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해 모든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읍지역의 여차별 문제와 소외계층 목욕서비스를 위해 목욕료 지원사업도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밤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울영상

백두대간 역사관

3D 에니메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서울영상관

지역 매아리

“사회적 가치 구현 최선 다할 터”

박한영 수자원공 겸 섬진강지사장 취임



효율적 수자원시설 관리 실현 및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 의지 밝혀

지난 4일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지사장으로 박한영(56·사진) 지사장이 취임했다.

박 지사장은 취임사에서 “과학적인 댐 운영 관리 및 재개발사업 준공으로 효율적인 수자원시설 관리를 실현하고, 아울러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사회적 가치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987년 한국수자원공사에 입사하여, 수자원교육원 기술교육팀장, 수도권기술처 시설안전팀장, 전북지역본부 정읍권 관리팀장, 수도권지역본부 팔당권 관리팀장을 역임했다.

박 지사장은 경북대 기계공학 학사, Texas Tech University 기계공학 석사, 충남대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Wisconsin 주립대학교 파견연구원 역임,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을 수료하였다.

/임실=진홍영 기자

유휴 행정재산 용도폐지 추진

임실군이 새해를 맞아 행정재산으로 관리 중인 국·공유지 도로와 구거 용지 등에 대한 용도폐지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군은 올해에도 행정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토지 등을 찾아 이에 대한 용도를 폐지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용도폐지 대상은 행정목적에 맞지 않거나 주민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무단 점유 및 방치된 공공용지다. 군은 이들 용도폐지 대상을 찾아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편의 향상에 힘을 계획이다. 지난해 군은 정부의 축산양성화 정책에 따라 무허가축사에 대한 용도폐지를 진행, 국가 농축산 경쟁력 제고에 앞장섰다.

또한 구역 내에 있는 노후화된 건물들을 새롭게 지어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하는 등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70필지 3,170㎡에 대한 용도폐지를 진행, 지역발전과 행정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얻었다.

국유재산 매각은 용도폐지 절차를 밟아야 하며, 신청은 해당 부지와 관련된 이해관계인만 할 수 있다. 용도폐지 후 국유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유재산은 재무과에서 매수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실=진홍영 기자